프로야구는 U+로 봅니다
아따~ 언능 U+ 프로야구 앱 다운로드 받으쇼잉!
ONE스토어 / Play스토어 / App Store ▶ [U+ 프로야구] 검색

병살타이거즈

KIA 4월 팀타율 0.296 리그 2위·홈런 36개 3위 불구 병살타 29개 ‘공격에 찬물’

병살타가 ‘호랑이 군단’의 발목을 잡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시즌 초반 타격은 ‘헛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

4월까지 KIA의 팀타율은 0.296을 기록하면서 LG 트윈스(0.297)에 이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삼진은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178개를 당하면서 219개의 삼진을 적립한 9위 LG와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36개의 한 방을 날리면서 SK(57개), kt(49개)에 이어 팀홈런 3위 자리도 지키고 있다. 장타율(0.467)과 출루율(0.359) 순위에도 SK와 kt와 함께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KIA는 13승 15패의 성적으로 6위 자리에서 4월을 마무리했다.

지난 시즌 막강 화력으로 우승 행보를 했던 KIA지만 올 시즌에는 시원한 공세를 보기가 쉽지 않다. 답답한 타격의 중심에는 찬물을 끼얹는 ‘병살타’가 있다.

KIA는 올 시즌 29개의 병살타를 기록하면서 LG(30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경기당 수로 따지면 31경기를 치른 LG가 0.97개, 28경기를 소화한 KIA가 1.04개가 되면서 순위가 달라진다. 144경기에서 117개의 병살타를 남겼던 지난 시즌(경기당 평균 0.81)을 생각하면 기회마다 터지는 병살타가 더 답답하다.

정체된 타선의 중심에는 나지완이 있다.

나지완은 4월까지 6개의 병살타를 남기면서 7개의 강민호(삼성)에 이어 공동 2위에 랭크됐다. 지난 시즌에는 137경기에 출전해 10개의 병살타에 그쳤던 만큼 나지완의 초반 병살타 페이스가 아쉽다.

여기에 나지완은 ‘선구안’이라는 장점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시즌에 볼넷 85, 삼진 90(0.94)로 ‘매의 눈’을 과시했던 나지완은 지난해에는 0.59(볼넷 62개, 삼진 106개)의 비율을 보였다. 올 시즌에는 12번 볼넷으로 출루했고, 삼진으로 24차례 물러나면서 볼넷/삼진 비율이 0.50으로 더 낮아졌다.

나지완에 이어 김선빈, 백용환, 버나디나, 안치홍, 최형우도 각각 4월까지 3개의 병살타를 남기면서 KIA의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

1승 4패를 기록한 지난주에도 KIA는 병살타 악몽에 울었다.

양현종이 완투패를 기록했던 지난 26일 한화전에서도 뼈아픈 병살타 2개가 남았다.

1-0으로 앞선 2회말 상대의 실책으로 선두타자 김민식이 출루했다. 이명기의 내야안타까지 이어졌지만 톱타자로 나섰던 김선빈이 병살타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8회말에도 볼넷 두 개로 1사 1·2루의 기회가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김민식의 타구가 2루수 앞으로 향하면서 4-6-3의 병살타가 기록됐다.

기회는 있었지만 결과를 만들지 못한 타선 탓에 양현종은 결국 1-3 완투패로 고개를 숙였다.

kt 주권이 복귀전에 나선 28일에도 KIA는 1-0으로 앞선 3회 상대의 실책과 몸에 맞는 볼로 1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최형우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경기 흐름을 내주고 말았다. 유일한 승리가 기록됐던 27일 kt전에서도 3개의 병살타가 쏟아지면서 경기 중반까지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전개됐었다.

5월 반전을 위해 세밀한 타격과 짜임새 있는 타순이 필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리는 강속구 영건

KIA 한승혁

두산 이영하

NC 정수민

SK 김태훈

LG 김대현

넥센 조상우

직구 구속 상위 20명 중 5명 20대 국내 선수

KIA 한승혁 157㎞…제구력 앞세워 5선발 꿰차

두산 이영하·SK 김태훈·LG 김대현도 성장세

20년 전까지만 해도 시속 150㎞는 외국인 투수만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국내 선수도 심심찮게 전광판에 찍는 구속이 됐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직구 평균구속 상위 20명(20이닝 기준) 가운데 5명이 20대 국내 선수일 정도로 강한 어깨를 뽐내는 선수가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미완의 대기’지만, 언제든 리그 정상급 선수로 도약할만한 기대주다.

우완 한승혁(25·KIA)은 이번 시즌 KBO리그에서 가장 강한 공을 던지는 선수다.

KBO리그 공식 기록업체 스포츠투아이에 따르면 한승혁의 직구 평균구속은 151㎞로 외국인 선수까지 포함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한승혁은 최고 시속 157㎞ 강속구에 향상한 제구력, 결정구 포크볼을 앞세워 KIA 5선발 자리를 꿰찼다. 4경기에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5.40을 거둔 그는 지난달 27일 수원 kt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따냈다.

이제는 ‘30대 투수’가 된 좌완 김광현(30·SK)이 직구 평균 시속 146.8㎞로 7위, 우완 이영하(21·두산)가 시속 145.2㎞로 13위에 올라 있다.

이영하는 올해 12경기에서 1승 1패 2홀드 평균자책점 5.48을 기록 중이다. 줄곧 불펜으로 뛰다가 지난달 29일 마산 NC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데뷔 첫 선발승을 거둬 두산 마운드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좌완 김태훈(28·SK)은 직구 평균 시속 144.6㎞로 16위다. 8경기에서 2승 1홀드 평균자책점 3.91을 거둔 김태훈은 강속구를 앞세워 입단 10년 차에 전성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대표로 뽑혔던 우완 김대현(21·LG)은 평균 시속 144.3㎞로 17위, 우완 정수민(28·NC)은 시속 144.1㎞로 20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닝 기준을 10이닝으로 낮추면, 또 한 명의 20대 토종 강속구 투수가 이름을 드러낸다. 마무리 투수로 12경기에서 13이닝을 던진 우완 조상우(24·넥센)의 직구 평균구속은 시속 150.8㎞로 1위 한승혁보다 고작 0.2㎞ 느리다.

신장 176㎝, 10라운드 지명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시속 150㎞를 보여준 우완 김진욱(18·한화)의 성장세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리디아 고 “내친김에 2연승”

LPGA 아메리카 볼런티어스 텍사스 클래식 내일 개막

21개월 만에 우승 축포를 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사진)가 내친김에 2연승에 도전한다.

리디아 고는 지난달 30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2016년 7월 마라톤 클래식 이후 우승이 없던 리디아 고는 호주교포 이민지와 벌인 연장 승부에서 이글을 잡아내며 우승 갈증을 털어냈다.

리디아 고는 3일부터 미국 텍사스주 더 콜로니의 올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71·6475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아메리카 볼런티어스 텍사스 클래식(총상금 130만 달러)에 출전한다.

2013년 창설된 이 대회는 노스 텍사스 슛아웃, 아메리카 볼런티어스 텍사스 슛아웃 등의 이름으로 열리다가 올해 텍사스 클래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앞서 열린 다섯 차례 대회 가운데 세계 랭킹 1위 박인비가 두 번이나 정상에 오르며 강세를 보였지만 올해 대회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번 시즌 앞서 출전한 8개 대회 가운데 최고 성적이 3월 HSBC 월드 챔피언십 공동 10위였던 리디아 고는 일단 메디힐 챔피언십 우승으로 자신감을 되찾았다.

한때 세계 1위에 오르며 여자골프 최강자로 군림했던 리디아 고는 2016시즌을 마친 뒤 코치, 클럽, 캐디 등을 모두 바꾸는 변화를 택했다. 이후 한동안 우승이 없었지만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전성기 때 모습을 선보이며 다른 톱 랭커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리디아 고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 은메달을 나눠 가진 박인비와 리디아 고의 ‘정상 대결’이 이번 시즌 LPGA 투어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회에는 이번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박성현도 출전한다. 박성현은 올해 7개 대회에 출전해 두 번 컷 탈락했다. 시즌 최고 성적은 ANA 인스퍼레이션 공동 9위다. 이 대회를 제외한 6개 대회에서는 모두 20위 이하의 성적에 그쳤다.

이번 시즌 5개 대회에서 한 차례 ‘톱10’을 기록한 전인지도 지난달 롯데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치고 기권한 이후 다시 필드에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양용은 “내친김에 안방 접수”

내일 GS칼텍스 매경오픈 개막

부활한 ‘바람의 아들’ 양용은이 국내 무대에서도 또 한번 돌풍을 기대한다.

지난달 29일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더크라운스에서 우승한 양용은은 3일부터 성남시 남서울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코리안투어 GS칼텍스 매경오픈(총상금 10억원)에 출전한다.

더크라운스 우승은 양용은이 JGTO에서 11년 7개월 만에 거둔 쾌거다. 양용은은 내친 김에 2010년 한국오픈 제패 이후 8년 만에 코리안투어 우승에 도전한다.

양용은은 2004년부터 해외 투어를 주무대로 삼아 코리안투어는 1년에 많아야 세 번 가량 출전하는데 그쳤다. 그러면서도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한국오픈을 제패했지만 2010년 우승 이후 해외뿐 아니라 코리안 투어에서도 우승 기근에 빠졌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아예 국내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는 지난해 세 차례 코리안투어에 나섰지만 2차례 컷 탈락에 KPGA선수권대회 20위라는 초라한 성적에 그쳤다. 지난해 컷탈락한 대회 가운데 하나가 매경오픈이다. 하지만 올해 대회에서는 당당한 우승 후보다.

양용은은 “체중 감량과 혹독한 겨울 훈련으로 전성기 기량의 90%를 회복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에는 양용은 뿐 아니라 해외투어에서 뛰는 강호들이 대거 출전한다.

지난해 매경오픈 챔피언 이상희는 37회째를 맞는 이 대회 사상 최초의 2연패를 노린다. 2016년 챔피언 박상현과 2015년 우승자 문경준도 두 번째 타이틀에 도전한다. 작년 코리안투어 상금왕 김승혁, 작년 대상 수상자 최진호, 한국오픈 우승으로 신인왕에 오른 장이근, 그리고 강경남도 올해 첫 고국 무대에 출격한다.

국내파 역시 총출동한다.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 우승자 전가람을 비롯해 이정환, 이형준, 김홍택, 서형석 등 20대 젊은 챔피언들이 해외파에 맞선다.

노장 황인춘(44)은 10년 만에 매경오픈 두 번째 정상을 넘본다. 한국프로골프 최다승(43승)과 최고령 우승(50세4개월25일) 기록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 최상호는 지난해 자신이 세운 최고령 컷 통과(62세4개월1일) 경신을 바라본다. /연합뉴스

우즈 “휴식은 끝났다”

내일 개막 PGA 웰스파고 챔피언십 출전

마스터스 토너먼트 이후 한 달가량의 짧은 휴식을 마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자리를 옮겨 부활 샷을 이어간다.

오는 3일 샬럿의 퀘일할로 클럽(파71·7554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웰스파고 챔피언십(총상금 770만 달러)은 우즈가 이번 시즌 일곱 번째로 출전하는 투어 대회다.

앞선 여섯 번의 대회에서 공동 2위 한 차례를 포함해 두 번 10위 안에 들고 한 차례 컷 탈락했다. 아직 우승 소식은 없지만 허리 부상과 이로 인한 깊은 슬럼프에서 벗어나 언제라도 우승 경쟁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줬다.

복귀 이후 출전하는 대회마다 그렇듯 이번 대회의 주인공도 우즈다.

우즈가 최근 “휴식은 끝났다”며 웰스파고 챔피언십 출전 사실을 전하자 퀘일할로는 우즈가 몰고 올 구름 관중에 대비해 인력과 물자 등을 늘리기로 했다.

퀘일할로에서 우즈가 경기하는 것은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마지막으로 출전한 2012년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선 컷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와코비아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대회가 열렸던 지난 2007년에 우즈는 이곳에서 한 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그 대회에선 우즈와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대회 전 프로암에서 동반 플레이를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랜 친구 사이였던 두 ‘황제’가 대회에서 함께 경기한 것은 처음이었고 수많은 갤러리가 몰렸다.

/연합뉴스